

## 호랑이 삼총사, AG 금 책임진다

윤석민·양현종·이용규 해외파 추신수·김태균 등과 호흡

내달 8일까지 부산서 합숙 훈련... 첫 경기 대만전 V선봉

‘호랑이 삼총사’가 2010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을 위해 뭉쳤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이 25일 저녁 부산에 집결해 합숙훈련에 돌입했다.

태극마크를 단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윤석민·양현종도 해외파 추신수(클리블랜드)·김태균(지바 롯데), 2010 프로야구 MVP 이대호(롯데), ‘괴물 투수’ 류현진(한화) 등과 금메달 사냥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뛰어들었다.

호랑이 삼총사는 대표팀 소집일 전날인 24일까지 KIA 남해 마무리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KIA가 가을잔치에 실패하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던 만큼 이들은 팀 훈련에 참여해 몸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그만큼 삼총사의 컨디션은 최상이다.

이용규는 “대표팀 훈련이 시작되면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체력적인 부분과 기본 연습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손가락 골절과 사구 논란 속에 재활과 등판을 반복했던 윤석민도 60개의 피칭을 소화하면서 명예회복을 준비했다. 윤석민은 “올 시즌 1군과 재활군을 오가느라 컨트론투도 안되고 많이 못 보여줬는데 몸 준비가 잘 돼서 잘 던질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도하 아시안게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제 2회 WBC에서 호흡을 맞췄던 윤석민·이용규와 달리 처음으로 성인대표팀에 부름을 받은 양현종의 컨디션도 이상무다.

양현종은 “굉장한 선배들과 생활을 하게 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다. 후반기 체력적인 부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



<윤석민>

<양현종>

<이용규>

지만 시즌 후 준비를 잘해 온 만큼 몸상태가 좋다”고 자신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금메달이다.

베이징 올림픽과 WBC에서 맹활약하며 국민선수로 발돋움 했던 이용규와 윤석민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우승을 하며 병역혜택이라는 귀한 선물도 받은 만큼 그것을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선 대회보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늘었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태극마크를 쓰는 게 어떤 자부심이나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주는 것 같다. 어떤 보직이든 보람이 되고 꼭 우승을 해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구대표팀은 내달 8일까지 부산 사직구장에서 호흡을 맞추고 같은 달 10일 결전지로 떠난다. 예선 첫 경기는 13일 오후 7시 난적 대만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대호 MVP·양의지 신인왕

프로야구 정규리그 시상

롯데 자이언츠의 ‘거포’ 이대호(28·사진 왼쪽)가 프로야구 데뷔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영예를 안았다.

생애 한 번뿐인 최고 신인상은 신인 포수 사상 최초로 20홈런을 때린 광주 진흥고 출신 양의지(23·두산)에게 돌아갔다.

이대호는 25일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프로야구 정규리그 MVP 투표에서 취재기자단 전체 92표 중 59표를 얻어 류현진(한화·30표)과 김광현(SK·3표)을 제쳤다.

이대호는 올 시즌 9경기 연속 홈런을 비롯해 44타점, 4홈런, 3홈런 등 타격 7개 부문 타이틀을 휩쓸었다.

최고 신인 투표에선 포수 양의지가 79표를 획득, 이재곤(롯데)·고원준(넥센·이상 5표), 오지환(LG·3표)을 큰 표 차로 따돌리고 신인왕에 올랐다.



양의지는 역대 신인 포수 최초로 20개의 홈런을 쳤고 정규리그 127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7(374타수 100안타), 68타점, 48득점, 4도루를 기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탈삼진왕 류현진, 세이브왕 손승락(넥센) 등 투수와 타자 부문 개인기록 부문 시상도 이뤄졌다.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KIA 투수 임준혁은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최다승리(15승) 투수상과 평균자책점(2.90)부문 2관왕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체고 양학선 희망 ‘도약’

세계선수권 도마 4위

런던올림픽 메달 기대

남자 체조의 차세대 기대주 양학선(18·광주체고)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 결선에서 도마 4위에 오르며 심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양학선은 지난 24일 밤(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호이 로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제42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마지막날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합계 평균 16.266점을 받아 토마스 부엘(16.449점·프랑스), 안톤 콜로즈코프(16.366점·러시아), 드미트리 카스피야로비치(16.316점·벨라루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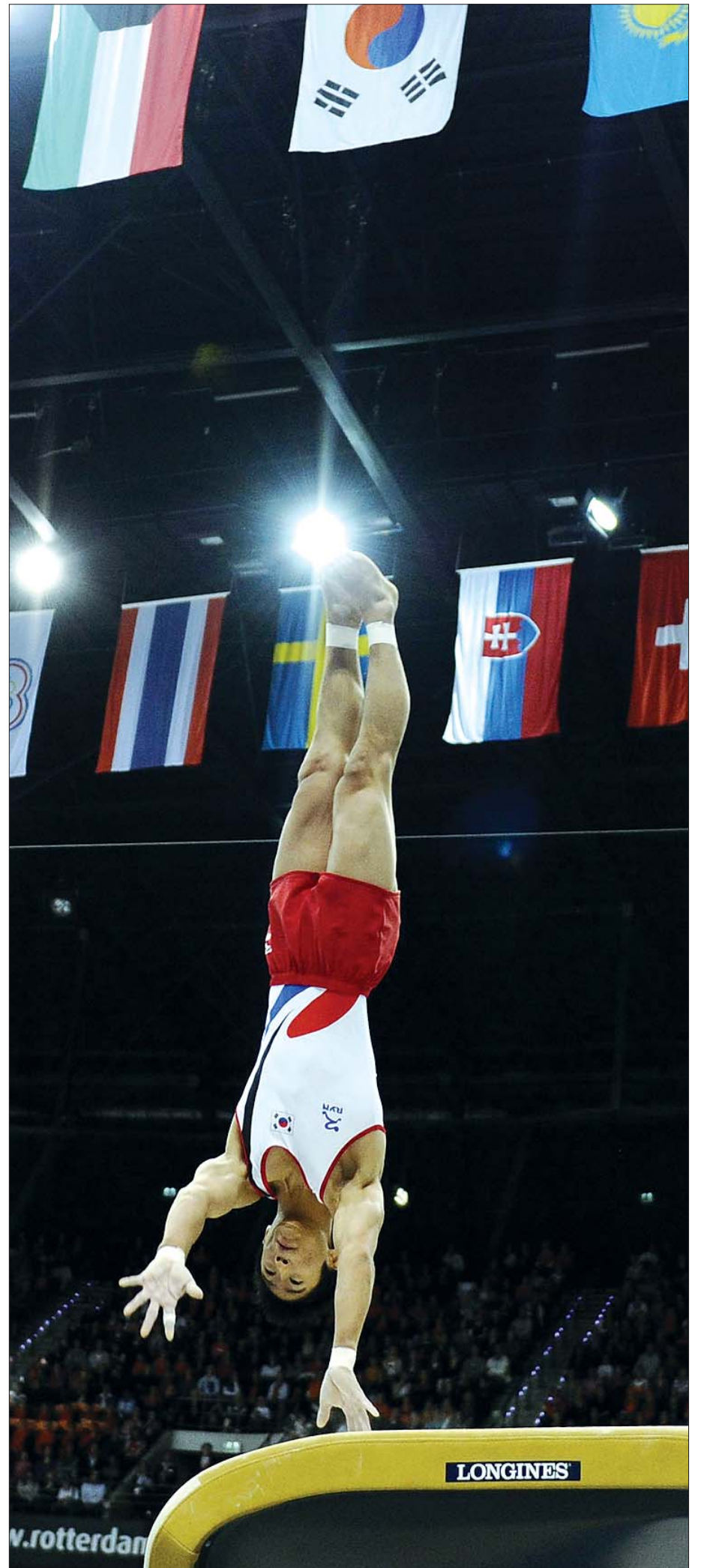
예선에서 16.266점을 받고 4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한 양학선은 이날 6번

째 선수로 나서 난도 7.0짜리 연기를 두 번 펼쳤다. 1차 시기에서 16.400점을 받아 메달 가능성을 높였던 양학선은 그러나 2차 시기에서 착지 때 왼발이 어깨 너비를 벗어남으로 감점을 피하지 못하고 16.133점에 머물렀다.

메달까지는 불과 0.05점이 모자랐지만 양학선은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심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은 단 체전 예선에서 7위로 결선에 오르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24위 이내 입상)을 따냈다.

여자 대표팀은 단 체전 20위를 차지하며 13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 당당히 출전하게 됐다.

/연합뉴스



양학선이 지난 24일 밤(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42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마지막날 도마 결선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당신이 무엇을 예상하는 빛나갈 것이다

상당원결 방범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방가?방가 (12세)	1관	심야의FM (18세)
2관	22블렛 (18세)/무적자 (15세)	2관	경우강호 (15세)
3관	시라노 - 연애조작단 (12세)	3관	심야의FM (18세)
4관	심야의FM (18세)	4관	시라노 - 연애조작단 (12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6관	적인걸 - 축천우후의 비밀 (12세)	6관	슈퍼맨 (전체)/적인걸 (12세)
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7관	22블렛 (18세)/방가?방가 (12세)
8관	윈장 (12세)	8관	찰을 수 없는 (18세)
9관	찰을 수 없는 (18세)	9관	윈장 (12세)
10관	경우강호 (15세)	10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11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11관	월스트리트 (12세)
12관	월스트리트 (12세)	12관	월스트리트 (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o.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최고급관
2관	경우강호 (15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4관	윈장 (12세)
5관	시라노 - 연애조작단 (12세)
6관	월스트리트 (12세)
7관	심야의FM (18세)
8관	방가?방가 (12세)
9관	찰을 수 없는 (18세)
10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1관	월스트리트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권당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청선요금 부가

**cinus**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시라노 - 연애조작단 (12세)
3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22블렛 (18세)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5관	적인걸 (12세)/경우강호 (15세)
6관	찰을 수 없는 (18세)
7관	심야의FM (18세)
8관	월스트리트 (12세)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o.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